

무화과 '웃고' 단감·사과 '울고'

전남 과일 브랜드 출시 4년



무화과 2017년 브랜드 출시 후 70억·지난해 81억 판매고... 단감·사과는 제자리

전남지역 과일 공동브랜드 '상큼에(愛)'가 론칭 4년째에 접어들면서 농가 소득 확대를 위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암 무화과



순천 단감

매년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농가소득 증대의 첨병 역할을 하는 상품에 있는가 하면, 지자체와 농업이 큰 돈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공동브랜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출이 부진한 품목도 있는 실정이다.

감안, 지난 2016년 상큼에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다.

가회'에서 "전남의 무화과를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전남 과일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무화과, 농가 '호자' 과일=무화과는 전남 공동브랜드인 '상큼에'를 사용하면서 통합 마케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대표적 과일로 꼽힌다.

무화과는 공동브랜드로 판매된 이후 영암·삼호, 신안·압해, 해남·땅끝 농업 3곳 농민들이 참여하던 데서 한평 천지 농업 조합원들까지 가세하고 직거래를 통한 공급·판매가 확대되면서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 등 공동 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단감·사과, 공동브랜드 효과 ανε제= 단감과 사과의 경우 매출액만 놓고 보면 만족할 수준은 못된다.

13일 농업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무화과는 지난 2017년 상큼에 브랜드로 출시한 뒤 70억원 어치를 판매한 데 이어 지난해 판매규모도 15% 성장한 81억원에 달했다.

직거래처 판매 수익이 지난 2017년 39억에서 지난해 45억원이 넘을 정도로 급등했고 농민이 개별 출하할 때에 비해 16억원 이상의 수취가격 제고 효과도 가져왔다 는 게 농업 전남본부 설명이다.

농협과 전남도 등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공동브랜드를 개발·육성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과일에 대한 육성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와 농업 전남지역본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농민이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 및 마케팅에 공동브랜드가 적합하다는 점을

김석기 농업 전남지역본부장은 이같은 점을 감안, 지난 9일 열린 '무화과 사업평

원, 강진 강진농협 등이 추가되는 등 참여 농민들이 늘어난 반면 매출은 2억6900만원(2017년)에서 1억8800만원(2018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과사업도 참여농협이 3곳(2017년)에서 4곳(2018년)으로 늘고 매출도 2500만원(2018년) 가량 올렸지만 공동브랜드를 통한 매출로 보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남도와 농업은 고품질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감안, 공동브랜드에 단감, 무화과, 사과에 이어 지난해 만감류까지 포함해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화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 의식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공동 브랜드 판매 활용도를 높여 농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상큼에는 최고의 맛과 품질만을 위한 '상' (上: PREMIUM), 남도 농업인이 넉넉하고 큼직한 정성 '큰' (大: BIG),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애' (愛: LOVE)를 나타낸다.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맛과 당도가 뛰어난 특·상품의 프리미엄 상품에만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협상·북미정상회담 이슈 부각 코스피 박스권 상단 2120선 반등 기대 IT·5G·폴더블폰·엔화 수혜주 관심을

연초 중국 PMI지수와 애플의 실적쇼크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지수가 파월의장의 완화적 발언과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으로 지난주 3.25% 상승해 2075.57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도 3.29% 올라 686.33포인트까지 극적으로 반등했다.

로 보인다.

지난주 필자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올해 증시를 '상저하고'로 비관적 예측을 보이는데 다수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시장에 약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반등에 주목하고자 했다.

나머지 요소인 미·중 무역협상의 원활한 타결을 기대해보지만 협상종료 후 양국 정부의 긍정적인 발표에도 불안한 상황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 종료 이후 지난 10일 관바로 EU·일본과 장관급 무역회담을 열고 '중국제조 2025'의 저지를 위해 지적재산권 및 시장개방확대를 위한 공동압박을 결의했다. 이것은 미·중 무역협상을 어떻게 하고 협상타결을 통한 종결이 아니라 강약 수위 조절은 있겠지만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단기적 또는 부분적인 타결양상이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 2100포인트는 이상은 단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시수대에서 추가반등을 위해서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미·중 무역분쟁 협상은 정말 잘 될 것인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파월의장은 확실히 완화적 입장으로 바뀌었는가 ▲경기선행지수 하락으로 경기하강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중국경제는 괜찮은가 등이다.

이변주는 미·중 무역협상의 추가진행 사항 발표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 이슈가 부각 될 수 있으므로 코스피지수는 단기박스권 상단인 2120선까지 반등을 기대해 보고 지수상승시 박스권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국의 자동차와 가전 등에 대한 소비촉진책과 엔화강세로 지난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IT 업종과 5G, 폴더블폰, 엔화 수혜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슈가 상존하고 있어 단기상승으로 가격부담은 있지만 대북관련주는 소테마별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와 앨런의장으로 이어오며 비둘기파적 성향이 지속되고 있던 FOMC는 파월의장이 지난해 10월 초 매파적 발언을 보이기는 했지만 경기하강 우려가 커지고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증시가 하락세로 전환된 시점에서 최근 완화적 발언을 시작한 파월의장은 매파적 발언보다는 완화적 스탠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정부는 10일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기준을 1% 인하와 함께 2019년 재정적자 목표를 2.8%로 상향조정하며 유동성공급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 경기는 현재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또 중국정부는 10일 중소기업을 위해 2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기준을 1% 인하와 함께 2019년 재정적자 목표를 2.8%로 상향조정하며 유동성공급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 경기는 현재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농관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3일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창구가 전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다. 이전까지는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농관원 사무소에서 발급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봄 파종용 보리·밀 종자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 2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 봄 파종용 보리와 밀 종자 공급지원 신청을 접수받겠다고 13일 밝혔다.

은 재분율이 높은 품종으로, 검사학적 여부에 따라 공급물량은 변동될 수 있다.

종자 가격은 1포(20kg)당 영양보리 미소독 2만4600원, 금강밀 미소독 2만5200원, 금강밀 소독 2만6600원으로 지난해 가을 파종용 종자 가격과 동일하다.

국립종자원은 조사료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봄 파종용 보리·밀 종자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가을 파종시기를 놓친 농가나 추기로 재배할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신청한 종자는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관엽부류 초매식 이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 제공>

aT, 화훼류 경매 성공기원 공판장 초매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최근 절화와 난, 관엽류 부류별로 '2019년도 aT 화훼공판장 초매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들 간 화합을 도모했다.

정성남 aT 유통이사는 "지난해 화훼산업 위기를 모두가 합심해 소비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올해 봄 보리·밀을 파종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봄 파종용 보리·밀의 파종시기는 2월 중·하순으로 최소 3월 5일까지 파종해야 하며, 가을 파종보다 25%정도 증량해야 정상적인 생육을 기대할 수 있다.

공급할 물량은 영양보리 미소독 45t, 금강밀 미소독 15t 및 소독 6000kg으로, 모두 봄 파종이 가능한 종자다. 영양보리는 사료용으로서 호외축병에 강하고, 금강밀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기타 휴묘기 등은 가을 파종에 준해 실시하고 미소독 상태로 공급되는 종자는 파종 전에 적절한 종자소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홍윤화 | 다영 | 최여진 | 김지영 | 김희정 무작정 풍덩하라 워터걸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20분 방송 CHANNEL